

계통우 조성 및 번식목장의 경영합리화 방안



임 경 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계통우는 어떻게 만들어 가나?

계통우는 번식능력과 산육능력이 우수한 번식우를 말한다. 다두사육 농가와 육종농가는 계통우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농가에서 자체보유 후보로 암송아지를 남겨 놓을 때는 생산된 암송아지 중에서 제일 좋고 어미보다도 능력이 좋아질 암송아지를 남겨 놓아야 한다. 좋은 송아지를 팔면 값을 많이 받아 일시적으로 수입은 많아지지만 자기농장의 우군 전체의 능력은 떨어지

며 언젠가는 우군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농장에서 비싸게 밀소를 사와야 한다. 번식능력과 산육능력이 우수한 송아지라고 판정하려면 자체에서 얻은 정보와 팔려간 송아지들의 정보가 필요하다.

어미의 능력이 얼마만큼 송아지에 유전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좋은 어미의 암송아지를 선택하여 후계자로 보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좋은 어미란 번식능력과 송아지를 기르는 능력이 좋고 그 어미의 생산형질인 냉도체, 배최장근단면적과 근내지방도의 유전능력이 좋고 그 어미의 번식능력이 좋은 소를 말한다.

팔려간 송아지의 정보를 얻으려면 송아지를 사간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송아지를 비육하여 팔았을 때 등급이 잘 나왔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가능하면 송아지를 사간 농가를 방문하여 사간 송아지들



한우씨수소(KPN538)



〈혈통595741(제천02-01-0143), 2002.5.8〉



한우당대<기초4193(2-526), 1976>



한우1대<고등353(211-132), 1981.4.4>



한우2대<고등1564(232-416), 1983.5.25>



한우3대<고등3085(263-147) 1986.10.22>

이 잘 자라고 잘 비육되고 있는지를 직접 알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집에서 생산한 수송아지를 집에서 직접 비육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어느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가 비육 후 좋은 등급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으며 좋은 등급이 나온 수송아지의 어미나 그 어미의 암송아지를 자체 보유하여 번식에 공용하면 계통우가 조성된다.



한우4대<고등26391(284-183) 1988.9.6>

소는 세대간격이 길므로 계통우를 조성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며 번식우에서 나오는 성적을 잘 정리하고 관리해가며 분석을 해야한다. 자가 수정란이식을 도입하면 계통우 조성기간이 단축이 되고 계통우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체 암소 중에서 능력이 우수한 암소에서 채란한 수정란을 수란우에 이식하여 송아지를 생산하면 짧은 기간 내에 우수한 송아지를 다수 생산할 수 있으며 이들 송아지 중에서 우수한 암송아지를 자체 보유하면 계통우가 조성된다. 계통우가 조성된

다두 사육농가나 육종농가는 송아지를 비싸게 팔 수 있으므로 경영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 번식목장의 경영합리화

번식목장의 경영을 합리화하려면 자금과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한다. 자금과 노동력을 어디다 어떻게 집중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다두 사육농가는 흔히 자금을 너무 농기구에 많이 투자하여 경영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농기구는 연중 쓰여지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그 외 기간은 놀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농기구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감가상각비로 조사료를 구입하여 소를 먹이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사를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자금을 많이 투입하여 훌륭한 우사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우사를 건축할 때 투자한 자금이 얼마 후 어떻게 환수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번식경영에서 돈을 벌여주는것은 소이다. 번식우는 관리가 잘되어야 송아지를 생산한다. 따라서 자본은 소에 투자되어야 한다. 소의 개체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능력이 좋은 소의 마리수를 늘리는 것이 경영을 합리화하는길이다.

생산비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조사료 생산에 힘을 기울이다 보면 소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게 되기 쉽다. 이 때문에 번식성적이 떨어지고 송아지의 발육이 나빠지며 오히려 생산비가 높아져 경영이 악화된다.

특히 다두 사육하는 경우는 번식우와 송아지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시간을 조사료 생산에 많이 쓰다보면 소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 소는 잘 돌보면 돌볼수록 좋아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 따라서 관리자는 매일 관리시간을 늘려 개체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고등등록십사우 (1986년)



고등등록십사우 (1994년)



가축사료용 사료작물 재배(I)



가축사료용 사료작물 재배(II)

최근에는 다두화가 진행됨에 따라 소에 의한 수입이 많은 농가가 늘어났으며 이런 농가는 벼농사를 그만두고 소를 전문으로 기르는 전업농가가 늘어났다. 이와 같은 경영형태가 되면 소를 대충 적당히 관리하게 되기 쉬우며 이렇게 되면 경영이 부실해진다. 경영은 장래를 바라보고 소를 만들어 가야 하며 경제감각을 가지고 소를 길러야 한다.

앞으로 사료급여에 대하여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급여한 사료의 양과 질이 그 결과로 나타난다. 그 결과가 번식장애로 나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된다. 농후사료를 중심으로 한가지 조사료만으로 장기 급여한 경우는 소들이 비육되어 번식장애 문제가 생긴다.

한우는 몸을 유지하는데는 많은 양분이 필요 없으며 특히 운동장이 좁은 우사에서 기르든가 겨울에 야외에 내 놓지 않은 경우는 영양분이 그리 많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료의 급여량은 정확히 해야 한다. 대충 적당히 급여하면 소는 살이 찌 암소는 번식성적이 나빠지고 송아지는 발육이 나빠진다. 때때로 체중과 흥위를 재고 BCS(신체중실도)를 조사하여 사료의 급여량을 조절해 나가야 한다.

경영이 불합리한 농가는 두수에 비하여 우사의 면적이 좁고, 산차가 높은 소가 많고, 노동력에 비



번식우관리



개체관리 현황판



하여 두수가 많은 유형이 많다. 두수에 비하여 우사가 좁을 경우에는 송아지의 발육이 나빠지고 사고가 나고 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우사의 면적은 소에 있어서 중요하다. 우사는 소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호적한 면적이 필요하다. 안정적으로 경영하려면 사육두수의 20~30% 여유 있는 우사의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경영을 합리화하려면 무엇보다도 번식성적, 포유능력, 산육능력이 좋은 번식우를 사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소는 우사에서는만 기르는 경우가 많으며 사육방법도 많이 달라져 공용연수가 짧아 졌다.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다두화 하여 힘을 기우려 경영을 합리화하고 있다. 하지만 하루 소를 관리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무시하고 조사료 생산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 아무래도 소의 관찰과 관리가 소홀하게 되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무리하게 두수를 늘리기보다는 노동력에 맞는 사육두수를 확보하여 최대의 이익을 얻는다는 마음으로 경영을 해야 할 것이다.

☞ 연락처 : 번우가축생명과학연구소장 임경순

충남 천안시 성남면 용원리 208-1 ☎ 041-554-8919, 011-9080-8919